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오 거룩하신 주님(찬 145)

주 앞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십자가를 참으신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3:27-31

“존귀하신 구주”

“역설의 진리 그리고 증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찬 516)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3. 다음 주일(3/7)은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건물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서 이사준비팀 모임이 있습니다.
6. 다니엘 금식기도가 3월 28일(주일) 부터 4월 3일(토) 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지가 배부될 것입니다.
7. 3/29(월)~4/3(토)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8. 한울림교회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일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되어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9.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10.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현재 새벽기도회 시간에 요일별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간부터 그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재정 긴축을 말하는 시대임에도 선교는 줄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울림교회 2021년 후원 선교사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합심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늘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재정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민영미 선교사가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선교사와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작은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일예배에도 선교사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김광성 선교사, 4월- 김순중 선교사, 5월-박미경 선교사, 6월-오구원 선교사, 7월-조성우 선교사, 8월-추기성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미 연락을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며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안타깝게 보시며 예수님은 탄성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대제사장 그룹들의 사리사욕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탐욕의 현상이 되는 것을 목격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강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며, 자신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사사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무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함께 모여 나라와 현 세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예배당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